

<최우수>

제목 : 엄마의 마음으로

타이베이한국학교 4학년 간지에

얼마 전, 우리나라에는 ‘천안함’ 침몰이라는 슬프고 무서운 일이 발생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젊은 군인 아저씨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다 속에서 죽어갔을 군인 아저씨들을 생각하며 왜 젊은 나이에 바다로 나가 나라를 지켜야 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이번 일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이런 일도 안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남북통일’에 대해 엄마와 함께 토론해 보았다. 엄마는 먼저 나에게 우는 아이를 잘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말 못하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에는 아이가 울지 않도록,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 배가 고플 수 있으니 우유를 타서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 주고, 아이가 아픈지 살펴보고 또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좋은 음악,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면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웃을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북통일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껏 우리나라의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는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들어준 다음, 북한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으로 만들어 준다면 더 이상 북한 사람들도 울거나 보채는 아기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해봤다. 우는 아기의 마음은 항상 아기를 잘 돌보아 주시는 엄마가 잘 알고 울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엄마가 된다면, 북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천천히 조금씩 서로에게 관심과 이해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의 통일도 생각처럼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말 중에 ‘노력해서 안되는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서로 서로 노력하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무서운 전쟁을 대신해서 기분 좋은 조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없는 관심과 이해 노력만이 우리의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엄마와 함께 평화적인 통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엄마의 마음으로 북한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속히 이루어,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금강산에도 함께 놀러 갈 그 날을 꿈꾸어 본다.

